

# ‘이태원 국조10일 연장’ 합의… 임시국회 소집은 ‘이견’

### 여야 원내대표 회동…기간 연장 안건, 오늘 오후 본회의서 의결 與 “방탄국회 있을 수 없어” vs 野 “민생법안 처리” 입장차 재확인

여야는 5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기한을 열흘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난 뒤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기간 연장 안건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 가동해 7일이면 45일간의 활동 기간이 끝나지만, 국회 예산안 심사 등으로 지난해 12월 21일에야 첫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활동이 지연됐다.

여기에 증인 채택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당초 예정됐던 3차 청문회도 활동 기간 중에 열리지 못하

는 상황이 되자, 여야는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박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의 증인을 어떻게 할지, 언제 열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는 언제 열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언제 할지는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한 의견도 나눴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1월에는 국회가 없게 돼 있고,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며 “오는 9일부터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

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2017년, 2018년 등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전례가 있고, 당장 오늘도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안보 위기가 경제 위기까지 가중시키는 상황”이라며 “본회의의 긴급 현안 질문을 하거나 국민의힘에서 앞서 요구한 대북 규탄 결의안 등도 처리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도 다 열 필요가 있어 요청했으나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이어 가고 있다.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곧장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비행한 사실을 군 당국이 뒤늦게 시인하자 반드시 본회의의 긴급 현안 질의 등을 통해 따져 물겠다는 입장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무인기 진상규명 작업이나 각종 민생법안까지 여러 국회 일정들이 남아 있다”며 “더구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은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이재명 방탄”, “노웅래 방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 쓸모 있는 의제만 관철하려 하지,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여야 합의를 구제화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 등을 위한 임시국회

는 이날 중순 설 연휴 이후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와 노 의원에 대한 사법절차가 불체포특권과 관계없이 진행되려면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 이후부터 설 전까지 국회를 열지 말자는 얘기다.

주호영·박홍근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최대 쟁점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활동 시한 연장에는 합의했지만,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에 대해선 한 치 양보 없이 이견을 드러냈다.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야당의 단독 소집 가능성도 커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의장은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뒤 사흘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국회를 연다. 민주당은 이번 12월 임시국회의 소집 요구서도 지난해 7월 단독으로 제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월 17일까지 연장을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국가, 제역할 하고 있는지 의심”

### 시민사회단체 신년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국가가 충실하게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구세군중앙회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많고 있다. 공동체를 지키는 것,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이날 행사 참석과 발언은 진보 진영인 시민사회에 연대 강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는 “오랜만에 제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신년 인사회에 왔다”고 소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로 많은 분이 희생됐고, 원인 규명이나 책임에 대한 분명한 대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환경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또는 한반도 평화의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지만 국민들의 저력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행사 자료집의 서면 새해 인사에서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지 않으면서 국민이 쟁취한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국민께 부여받은 권한을 최대한 제대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 박지원, 내일 광주서 특강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7일 광주를 찾아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한다.

이날 특강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오후 2시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만약 지금 DJ라면’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박 전 원장은 민주주의와 정치권이 나아가야 할 방안 등에 대한 해법과 호남의 역할, 민주주의에서의 시민 정치 참여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공개 특강으로 당원은 물론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한편 박 전 원장은 4선 국회의원으로, 김대중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문화관광부장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고문을 맡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이병훈 ‘성범죄자 저작물 관리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동남) 국회의원은 5일, 도서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아동 성범죄자의 저작물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었다. 이번에 발의한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당시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발의됐다.

이번 법 개정안은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가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을 일상업무로 관리하기 위해, 아동성범죄자의 범죄정보 고지 대상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아동성범죄자의 정보를 공유받아 도서관에 소장된 저작물 중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을 상시적으로 가려낼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각급 도서관들은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이용 제한 조치가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심의과정에 저작자의 이의신청권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위한 조치가 이뤄졌다.

이병훈 의원은 “아동, 청소년 시기는 인격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며 “읽고자 하는 책이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는데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 조치”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변호인단’ 박근혜 전 광주고검장 합류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인단에 박근혜(사법연수원 21기) 전 광주고검장이 합류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로써 박 전 고검장은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 부위원장 겸 당 대표 법률특보를 맡게 됐다.

그동안 이 대표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김중근(18기) LKB 대표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응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 출두를 앞두고 검찰 고위직 전관 출신으로 변호인단을 보강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박 전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검찰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발탁됐다. 2018년에는 동기 중 유일하게 고검장(광주고검장)으로 승진하기도 했

다.

그러다 2019년 7월 한직인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났는데, 이를 두고 당시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당시 청와대가 추진하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는 2020년 1월 2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임명되자 곧바로 사표를 냈다. 이후 변호사 활동을 하던 박 전 고검장은 작년 7월 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고검장은 검찰과 이 대표 출두 시점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h3>전원주택 (1채) → 7,000만</h3> <p>(토지 분양 중) 장성담 5분, 광주 20분, (6M도로 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세컨하우스</li> <li>② 소형 주택</li> <li>③ 전기,수도,배수 완비</li> <li>④ 주말 하우스 최고</li> <li>⑤ 잔디,나무,일체 포함</li> </ul> <p>★ 토지분양 → 전원주택 토지 (100평, 150평, 200평)</p> <p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010-6670-9800</p>	<h3>상가매매(상무지구)</h3> <p>(매매, 임대) 권리금 없음</p> <p>▶ 중심 상업지구 (유형 적합)</p> <p>(6층, 7층) = 140평</p> <p>시세 → 10억</p> <p>➡ 급매 7억</p> <p>보3천 월 380만 ( 용 4억5천 )</p> <p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010-2614-9801</p>	<h3>경매교육 [특수 전문반]</h3> <p>기초반, 중급반</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li> <li>2) 중급반 (실전부터 ~)</li> <li>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li> <li>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li> </ol>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tr> <td>북구 두암동 (상가주택)</td> <td>▶</td> <td>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td> </tr> <tr> <td>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td> <td>▶</td> <td>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td> </tr> <tr> <td>서구 화정동 (주택)</td> <td>▶</td> <td>감정가 1억9천만 → 최저가 1억2천</td> </tr> <tr> <td>광산구 박호동 (주택)</td> <td>▶</td> <td>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3억</td> </tr> <tr> <td>광산구 하남동 (공정)</td> <td>▶</td> <td>감정가 36억 → 최저가 16억</td> </tr> <tr> <td>장성 동화면 (과수원)</td> <td>▶</td> <td>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5억7천</td> </tr> <tr> <td>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td> <td>▶</td> <td>감정가 54억 → 최저가 30억</td> </tr> <tr> <td>김제시 하동 (아파트 293세대)</td> <td>▶</td> <td>감정가 130억 → 최저가 65억</td> </tr> </table>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	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	서구 화정동 (주택)	▶	감정가 1억9천만 → 최저가 1억2천	광산구 박호동 (주택)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3억	광산구 하남동 (공정)	▶	감정가 36억 → 최저가 16억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5억7천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정가 54억 → 최저가 30억	김제시 하동 (아파트 293세대)	▶	감정가 130억 → 최저가 65억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																								
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																								
서구 화정동 (주택)	▶	감정가 1억9천만 → 최저가 1억2천																								
광산구 박호동 (주택)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3억																								
광산구 하남동 (공정)	▶	감정가 36억 → 최저가 16억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5억7천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정가 54억 → 최저가 30억																								
김제시 하동 (아파트 293세대)	▶	감정가 130억 → 최저가 65억																								